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혁신 친화적 지식재산 환경 조성 노력 촉구

- 이인실 청장, 제64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참석...한국 수석대표로 연설 -
-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보호 및 지식재산 격차 해소 노력 소개 -
- 12개 특허청과 회담, 3개국과 협력 양해각서·협약 체결 성과 -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부터 7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64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에 참석해 대표연설을 하고, 혁신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와 회담에 이어 12개 특허청*과 회담을 갖고, 3건의 협력 양해각서·협약을 체결하며 중동·오세아니아·유럽까지 협력범위를 넓혔다.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캐나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덴마크, 호주, 키르기스스탄, 프랑스 특허청 및 유럽지식재산청(EUI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대표연설>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서 지식재산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혁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 친화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역사무소 설치 논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93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은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12개 특허청과 회담, 3개국과 업무 협약(MOU) 성과>

또한, 이 청장은 3일간의 짧은 일정 중에 12개 특허청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식재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와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와 포괄협력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2023. 6월 기준 한국특허청은 37개 지식재산기구와 PPH 시행 중)

①호주특허청과는 포괄적 협력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여 지식재산보호,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정보공유,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로 양 청간의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②사우디아와는 ‘한-사우디 지식재산청간 지식재산 교육 제작물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 편찬한 학생발명 교육교재의 아랍어 판이 제작되어 '21년부터 사우디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된 학생발명교육 수업에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③스웨덴과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KIPRO) 등이 스웨덴 지식재산청을 통해 현지 출원인, 연구자 등에게 ‘아시아 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한국의 심사관련 역량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와는 올해 하반기 특허심사하이웨이(PPH)와 포괄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식재산 행정, 정보화, 교육, 지식재산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분야의 세계적인 중추국가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기반을 더욱 활발히 전파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정대순 (042-481-5063)
		담당자	사무관	허원석 (042-481-8766)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책임자	과 장	윤세영 (042-481-8197)
		담당자	사무관	최교숙 (042-481-8555)



(사진설명) 이인실 특허청장이 7월 6일(현지 시간) 제 64차 WIPO 총회에 참여했다.



(사진설명) 이인실 특허청장이 7월 6일(현지 시간) 제 64차 WIPO 총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1.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신속한 권리화 지원

◆ 인도네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에 합의

○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민 우시헨(Min USIHEN)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장과의 양자회담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23.6월 기준 한국특허청은 37개 지식재산기구와 PPH 시행 중)

- 인도네시아는 우리기업의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다. PPH가 시행될 경우, 현지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해져 핵심기술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韓→인도네시아, 2021년도) 376건 (출처: WIPO)



2023년 7월 6일(현지시간) 이인실 특허청장(왼쪽 여덟 번째)이 민 우시헨(Min USIHEN)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장(왼쪽 일곱 번째)과 양자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독일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CSP) 협력강화

○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에바 쉘비오르(Eva Schewior) 독일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특허공동심사(CSP*) 프로그램 협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7월 7일에는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Abdulaziz ALSWAILEM) 사우디 지식재산청장과 회담을 갖고, CSP 프로그램의 시행을 2년 간 연장하기로 했다.

*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 양국에 동일 발명이 출원된 경우,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 향후, 독일과의 CSP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특허심사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되어 독일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고(高)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은 보다 지속적으로 CSP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7월 6일(현지시간)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이 에바 쉘비오르(Eva SCHEWIOR) 독일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UIPO 측과는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유럽출원 지원

-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EUIPO (유럽지식재산청) 안드레아 디 카를로(Andrea Di CARLO) 차장과 우리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유럽시장에 상표출원을 하려는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UIPO와 협력하여 제작한 '해외 출원인을 위한 가이드북(◆ 유럽연합 상표제도의 소개, ◆ 유럽연합 상표의 출원 절차 및 등록요건, ◆ 출원 과정에서 주의사항 등이 수록)'이 활발하게 활용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



2023년 7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특허청-유럽지식재산청(EUIPO)간 고위급 회의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과 안드레아 디 카를로(Andrea Di CARLO) 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인프라 전파

◆ 사우디와 지식재산청간 IP 교육 콘텐츠 협력 약정 체결

-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7일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Abdulaziz ALSWAILEM) 사우디 지식재산청장과 ‘한-사우디 지식재산청간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 (주요내용) 한국 특허청-WIPO가 공동 편찬한 학생발명 교육교재(How to make great ideas for inventions)에 대한 아랍어판 제작 및 시행 라이선스 관련 협력

- 특히, 동 약정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발명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협력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쏘 세계적으로 발명교육 분야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특허청은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발명교육관련 선진 경험과 노하우를 사우디에 전수하고, 향후 일반 국민 대상 교육, 심사관 교육, 공무원 대상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 지식재산청과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7일(현지시간)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이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Abdulaziz ALSWAILEM) 사우디 지식재산청장과 ‘한-사우디 지식재산청간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협력을 위한 약정’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스웨덴과 아시아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MOU 체결

-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피터 스트롬백(Peter STRÖMBÄCK) 스웨덴 지식재산청장과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MOU를 체결했다.
- 이번 MOU 체결은 스웨덴 지식재산청이 한국의 특허정보 제공서비스 품질을 높이 평가하고, 자국 출원인들을 위한 아시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서비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은 7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피터 스트롬백(Peter STRÖMBÄCK) 스웨덴 지식재산청장과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키르기스스탄에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과 브랜드 제공

-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라हत 케림바예바(Rakhat KERIMBAEVA)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2021년 한국 특허청이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키르기스스탄 측에 제공한 수경재배 온실 적정기술 및 이와 관련된 브랜드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라हत 케림바예바(Rakhat KERIMBAEVA) 키르기스스탄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있다.

3. 심사관 역량 강화 및 최신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협력

◆ 독일 및 호주와는 심사관 교류 사업 시작, 프랑스와는 심사관 교류 사업 확대 방안 논의

-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에바 쉐비오르(Eva SCHEWIOR) 독일 특허상표청장과, 7월 7일 마가레트 트레거타(Margaret TREGURTHA) 호주 지식재산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심사관 교류사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 청장은 7월 7일 개최된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특허청장과의 양자회담에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심사관 교류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심사관 교류사업은 양 국의 특허심사관들이 동일한 출원에 대해 선행기술 조사와 심사결과를 서로 비교·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양 국 심사관들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어 출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하면서도 고(高)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은 7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특허청장과의 오찬회담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호주와 포괄협력 MOU 체결, 인도네시아 및 덴마크와는 올해 하반기에 체결기로 합의

-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7일 마가레트 트레거타(Margaret TREGURTHA) 호주 특허청 차장과의 양자회의에서,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7월 6일에는 민 우시헨(Min USIHEN)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장과, 7월 7일에는 수네 스타뎀페 소렌센(Sune Stampe SØRENSEN) 덴마크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2023년 하반기에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 포괄협력 MOU 체결을 통해,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 지식재산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등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은 7월 7일 마가레트 트레거타(Margaret TREGURTHA) 호주 특허청 차장과 한-호주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캐나다와는 녹색기술 특허출원 활성화 방안, 싱가포르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IP 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6일 콘스탄티노스 지오가라스(Konstantinos GEORGARAS) 캐나다 지식재산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최신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녹색기술 특허분류체계 구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또한, 이 청장은 7월 6일 개최된 레나 리(Rena LEE)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3년 7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왼쪽 네 번째)이 콘스탄티노스 지오가라스(Konstantinos Georgaras) 캐나다 지식재산청장(왼쪽 세 번째)과 양자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년 7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이 레나 리(Rena LEE)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있다.